

1.

복권판매점 :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158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 갔다가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스피또2000 4장을 구입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남편과 함께 복권을 굽어서 당첨을 확인해봤습니다. 1등에 당첨됐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서 '가게를 접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큰 행운이 찾아와 다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딸아이가 똥 꿈을 꿔했습니다. 큰 똥을 손으로 담는 꿈을 꿔다고 했습니다. 딸도 복권을 샀지만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 평소에 어떤 복권을 자주 구매하시나요?

-> 바로 당첨을 확인할 수 있는 즉석복권을 종종 구입합니다.

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64 1층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또복권만 샀는데, 주변 지인이 연금복권을 권해서 연금복권도 사고, 잔돈 있으면 즉석복권도 조금씩 구입합니다. 며칠 전 꿈이 좋아 연금복권과 즉석복권을 샀고 연금복권 추첨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에 당첨번호를 확인 해보니 1, 2등에 동시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면 엄청나게 흥분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선물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와 북쪽에서 복권을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평소 가던 복권판매점이 아닌 집에서 북쪽으로 차를 몰고 가보니 복권판매점이 있었고 거기서 연금복권과 즉석복권을 구입했습니다.

3.

복권판매점 : 경기도 화성시 세자로 492(안녕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당첨을 기대하며 소액으로 복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외부 미팅이 많아 외근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할 때, 복권판매점이 보여서 로또복권 5천 원, 스피또 5장을 구매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첨 확인을 사무실에서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도 굶으라고 선물로 주기도 했는데, 그날은 웬지 모르게 혼자 굶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주 꿈에 그리던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기분은 좋았지만, 사무실에 직원이 많아서 내색하지 않았고, 그동안 당첨됐을 때를 대비해서 생각한 시뮬레이션대로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당첨된 복권을 다시 확인하고, 당첨금을 빨리 수령해야겠다는 생각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당첨 확인 검증받고 예약했습니다. 최근 복권 당첨 꿈을 자주 꾸서 로또복권에 신경을 썼는데, 스피또에서 당첨되다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최근 일주일 동안 1등 당첨되는 꿈을 자주 꿔습니다.

4.

복권판매점 : 충남 부여군 사비로 6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재미 삼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로또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심심해해서 스피또를 사줬는데, 굶는 재미와 소액 당첨이 잘 된다고 즐거워해서 매주 몇 장씩 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데이트하고 집에 가는 길에 복권판매점이 보여서 소액 당첨 복권과 현금으로 스피또를 몇 장 샀고 구입한 복권은 집에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복권을 굶었는데 5억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통화로 복권을 확인했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실물을 보니 실감이 나면서 기분이 좋았고, 아내와 서로 마주 보며 드디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며 즐거워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아내가 길에서 명품가방을 줍는 꿈을 꿔습니다.

5.

복권판매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2번길 12 (김량장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3~4개월 전부터 연금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금식으로 당첨금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친구와 술을 먹고 복권판매점이 보이길래 연금복권을 샀습니다. 당시 비가 많이 왔었는데, 복권을 사고 나오니 신기하게도 비가 그쳤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구입한 복권은 책상 위에 모아뒀습니다. 일이 빨리 끝나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고, 책상에 있는 연금복권이 보여서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 조금 놀랐지만 덤덤했습니다.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돌보기에 힘들었는데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고, 우연히 당첨된 것 같습니다.

6

복권판매점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울곡로 1867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일주일의 희망으로 마음을 비우고 매주 복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로 빚에 시달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매장 휴게소에서 쉬는 시간에 구매했던 복권 당첨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오억 원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복권을 계속 쳐다보며, 이제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빚에 벗어나기 위해 힘들게 살아왔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절망적인 생활에서 안정적인 생활로 벗어날 수 있는 행운이 다가와 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온 꿈을 꿔왔습니다.

7.

복권판매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최근 돌아가신 부모님과 오빠가 꿈에 나와서 복권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천안에 있는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언니가 단골집 복권판매점이 있다며 복권 사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각각 스피도를 구매했고, 그 자리에서 복권을 긁었습니다. 복권을 긁는데 오억 원 당첨복권이 나왔고, 얼떨떨한 마음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과 사장님도 축하해 주셨고, 사장님께서 직접 당첨금 수령 예약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흥분되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대출금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1등 당첨으로 인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돌아가신 부모님과 오빠가 나오는 꿈을 꿴습니다.

8.

복권판매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4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아는 동생이 로또복권만 구매하던 저에게 재미있는 복권이 있다며 즉석복권을 선물로 줬습니다. 즉석복권은 종종 소액에 당첨되고 긁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복권판매점이 보였고 지갑에 잔돈 3천 원과 이전 소액에 당첨된 복권을 교환했습니다. 집에서 당첨 확인을 하는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해도 1등 당첨이 믿기지 않아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복권을 보여줬습니다. 잠결에 복권을 확인한 남편은 "이게 먼일이다냐"라며 놀라워 했습니다. 심심풀이, 재미로 복권을 구매했는데 1등 당첨이라는 행운이 오다니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당첨금은 대출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며, 남편이 형제들에게 당첨 사실을 말해서 잔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최근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9.

▶ 복권판매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7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로또복권과 스피도 복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위급 관료를 만나러 가는 꿈을 꿔고, 복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권판매점에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 후 당첨 확인을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액 당첨된 복권까지 교환했지만, 결과는 모두 낙첨. 집에 가는 길에 아쉬움이 남아 주머니에 있던 잔돈으로 편의점에서 복권 한 장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구매한 복권이 1,000원에 당첨되어 다시 복권으로 교환했고, 그 복권에서 1등 당첨이 된 것입니다. 2~3분 동안 멍하니 복권만 쳐다보고 있었고 믿어지지 않아서 편의점 사장님께 복권을 보여주며 당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1등에 당첨됐다고 알려줬습니다. 부모님께 당첨 사실을 말씀드렸고, 당첨금을 어떻게 수령할지, 어디에 사용할지 등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지기 위해 여행을 다닐 예정입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고위급 관료를 만나러 가는 꿈을 꿔했습니다.

10.

▶ 복권판매점 :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185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평소 소액으로 로또복권을 구매하고 있고, 즉석복권은 아이들이 굶는 걸 좋아해서 종종 구매하고 있습니다. 1월에 생일인 둘째 아이를 위해 외식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복권판매점이 보여서 로또복권과 즉석복권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즉석복권을 굶었는데 첫째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권을 확인해 보니 1등에 당첨되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가 유재석 님이 나온 꿈을 꾸었다고 하여 꿈을 산 적이 있었는데, 덕분에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 고마운 마음입니다. 다음날 아이들에게 태블릿과 노트북을 선물로 사줬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잊고 있다가, 장마 시즌에 여유가 생겨 뒤늦게 당첨금을 수령하니, 1등 당첨 사실이 실감 나고 기쁩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첫째 아이가 유재석 님이 나온 꿈을 꾸었습니다.

11.

복권판매점 : 경기 평택시 평남로 58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로또복권 초창기부터 소액으로 재미 삼아 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옷걸이에 걸려있는 가방을 보고, 작년에 지인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구입한 복권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가방을 뒤져 보니 당첨확인이 안 된 복권 5장이 깊숙이 들어있었습니다. 복권을 꺼내서 바로 당첨확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오랫동안 잠들어있던 복권에서 1등 당첨이 나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고, 아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당첨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진짜 당첨된 거냐며 기뻐했습니다. 몇 달만 더 늦었다면 1등 당첨의 행운이 물거품 될 뻔했는데, 당첨금 지급 기간 내에 잊고 있었던 복권을 찾아 당첨확인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은퇴 후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오순도순 사는 게 꿈이었는데, 1등 당첨으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합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최근에 아내가 거대한 금덩어리 주변을 빙빙 도는 꿈을 꾸었습니다.

12.

복권판매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85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6~7개월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와 "너 1등이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내에서 성과 실적인가 생각했지만, 복권 1등이 생각나서 로또복권을 구입했고 로또복권을 사고 남은 돈으로 즉석 복권도 종종 구입했습니다. 한 달 넘게 1등 당첨 소식은 없었지만, 어머니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액당첨의 재미로 즉석 복권을 꾸준히 구입했습니다. 몇일 전, 평소와 같이 퇴근길에 자주 가는 복권판매점에서 로또와 즉석복권을 구입했고 집에서 가족들이 모르게 혼자서 당첨확인을 했는데, 1등 당첨 복권이 나왔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되네'라는 생각뿐, 무덤덤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서프라이즈 선물로 당첨 소식을 알릴 계획입니다. 1등 당첨이라는 행운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너 1등이야"라고 말씀해주신 꿈을 꿴습니다.

13.

복권판매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106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일주일의 희망으로 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외근으로 밖에서 일을 하다가 복권판매점이 보이길래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구입해 소액으로 당첨된 스피또복권과 주머니에 있던 잔돈으로 스피또1000을 구입했습니다.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복권을 긁었고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계속 멍하니 복권을 보다 보니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복권 긁는 걸 구경하던 직장 동료 때문에 회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날아갈 듯한 기쁨도 잠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의 "어떤 손으로 긁었냐", "얼마짜리 동전으로 긁었냐" 등 질문 공세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황당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최근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14.

복권판매점 :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322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재미 삼아 소액으로 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스피또1000을 구입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복권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재미있어 보인다면 관심을 보이길래 한 장씩 긁어보라고 나눠줬습니다. 그중 한 명이 "형, 이거 된 거예요??"라고 묻길래 확인했더니 1등에 당첨된 복권이었습니다. 몸이 굳으며 손이 떨렸고 10초 동안 멍하니 복권만 쳐다봤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와 이게 되네", "1등이 있네", "부럽다!" 등 다양한 반응 보이며 축하해 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족과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출금이 많아 힘들었는데 저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여자친구 몰래 바람피우다 들키는 꿈을 꿔했습니다.

15.

복권판매점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428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생각날 때마다 집 근처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복권 5천원, 연금복권 5천원씩 사고 있습니다. 구입한 복권은 한 곳에 모아뒀다가 2~3주에 한 번씩 당첨을 확인합니다. 며칠 전, 퇴근 후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확인하면서 연금복권도 같이 확인해봤고 1등 당첨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들고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IMF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못 해준 것 같아 늘 미안했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쁩니다. 당첨의 행운은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렵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행운을 준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평소에 꿈을 꾸지 않습니다.

16.

▶ 복권판매점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900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출장을 가면 담배, 음료 등을 사러 편의점 등에 자주 갑니다. 계산을 하면서 복권이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잔돈으로 구입하고 바로 당첨을 확인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복권을 모아서 한 번에 당첨을 확인합니다. 며칠 전, 오랫동안 모아둔 복권의 당첨을 확인하는데, 일등 당첨 복권이 나왔습니다. 1등 당첨 복권을 보고 '어? 당첨됐네?', '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고 무덤덤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구입한 복권이지만, 덕분에 사업 실패 등으로 생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최근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17.

▶ 복권판매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24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한 달에 한두 번씩 소액으로 복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건다가 복권판매점이 보이길래 복권을 샀습니다. 평소 스피또는 구매하지 않고 로또복권만 구매했는데, 친구가 스피또를 구매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 구매했습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서 복권을 긁었는데, 당첨결과에 어안이 빙빙했습니다. '이게 뭔가', '1등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집안에 똥이 가득히 쌓여있는 꿈을 꾸셨는데, 그 행운이 저에게 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당첨 사실을 알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복권이 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아버지께서 집안에 똥이 가득히 쌓여있는 꿈을 꾸셨습니다

18.

▶ 복권판매점 : 울산 남구 삼산로 9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설날 전에 로또복권에 5천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된 로또복권을 바꾸려고 판매점에 갔다가 즉석복권이 눈에 띄길래 스피또1000으로 교환했습니다. 판매점에서 바로 긁어 당첨번호를 확인했더니 5억원 숫자가 보여 놀랐습니다. 재미로 샀고 기대도 안했는데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우연히 당첨되어서 그런지 기분은 덤덤했고, 당첨복권은 바로 지갑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습니다.

19.

▶ 복권판매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64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재미와 기대감으로 복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등산 가는 길에 2장, 등산 후 집에 오는 길에 2장 총 4장을 구매했습니다. 늦은 저녁 TV를 보면서 쉬다가 구매한 복권이 생각이 나서 긁어봤습니다. 10억 원에 당첨된 복권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동행복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확실히 당첨된 것을 알았지만,

지금도 꿈같아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은퇴 후 배우자만 직장을 다니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20.

복권판매점 :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65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평소 소액으로 로또복권을 구매하다가, 즐겨보던 유튜버가 1등 당첨된 것을 보고 스피또를 구매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본가가 지방이고, 애인도 지방에 있어서, 본가에 자주 방문합니다. 주말에 로또판매점에 방문하여 로또를 구매한 김에 스피또가 생각나서 같이 구매하였습니다. 며칠 뒤 당첨확인을 하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피또는 거의 처음이라 게임 방식을 잘 몰라서 1등인지 잘 몰랐습니다. 천천히 확인해 보니 1등임을 알 수 있었고 기쁜 마음에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행운이 오다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21.

복권판매점 :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22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평소 로또와 즉석복권을 자주 구입합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스피또 1000을 몇장 사서 작업복에 넣어뒀습니다. 구입한 것을 잊을 채, 빨래를 하려고 작업복의 안주머니를 뒤졌는데 즉석복권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긁었습니다. 5장이 1000원에 당첨되었고 복권판매점에 가서 당첨복권을 바꾸면서 1만원을 더 주고 15장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판매점에서 바로 긁었고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멍'하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당첨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 소원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당첨되게 해달라고 계속

빌었습니다.

22.

복권판매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89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설마 당첨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소소하게 복권을 즐기고 있습니다. 거래처 방문하기 전, 로또복권을 사러 복권판매점에 방문하였는데 스피또2000이 눈에 들어와 5장을 구매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복권을 긁었는데 2세트는 낙첨이었고, 마지막 날장에서 10억 당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하고 진짜인가 싶어서 계속 쳐다봤는데, 10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보이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나머지 반쪽이 생각났습니다. 급하게 복권을 구매한 판매점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나머지 반쪽짜리 복권은 이미 팔린 상태였습니다. 반쪽짜리 복권을 구매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저에게 큰 행운이 온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하며 살아온 저에게 복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 복권 당첨된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혹은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났고 배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23.

▶ 복권판매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92-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2023년을 맞아 친구들과 신년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한 친구가 복권을 구매하겠다고 하여 따라나섰고, 재미있어 보여 처음으로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복권을 확인하는데 믿기지 않은 현실에 손이 떨렸고, 계속 복권만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된 것이었습니다. 복권을 계속 구매했던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구매해서 당첨되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 당첨 사실을 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첨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도 못 세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최근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24.

복권판매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봉수대로 1704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큰돈은 들이지 말고 소액으로 복권을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매주 복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평소 월요일에는 복권을 구매하지 않는데, 우연히 가방 속 당첨 복권이 보였고, 거래처 가는 길에 복권판매점에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복권을 굵거나 모아서 한번 당첨확인을 하는데, 그날따라 당첨확인을 바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통화 중에 복권을 굵었는데, 일치한 그림 옆에 일십억이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글씨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아,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집에 오니 실감이 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배우자는 큰 병에 걸리고, 사업 운영은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행운이 온 것 같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단체에 꾸준히 후원한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복권 당첨된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혹은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고생해준 배우자가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낚시를 좋아하는데, 크고 이쁜 잉어를 낚는 꿈을 꿉습니다.

25.

▶ 복권판매점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7길 2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일주일에 한두 번씩 로또복권, 스피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스피도는

올해 초에 사람들이 복권판매점에서 긁는 것을 보고 재밌어 보여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로또복권 대신 스피또1000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복권은 거실 서랍장에 보관해뒀고 갑자기 생각이나 긁어서 확인했습니다. 몇 장을 긁었고 바닥에 떨어진 3장의 복권이 보여 다시 긁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천원으로 보였던 것이 계속 들여다보니 오억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오묘한 기분이 들어 아들에게 확인해보라 했고, 동행복권 고객센터에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1등 당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첨금 수령 전날까지 잠도 안 오고, 폭설 뉴스에 걱정이 많았는데 무사히 수령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년 후 공공근로를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1등 당첨으로 노후가 든든해졌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최근 꿈을 꾸지 않았습다.

26.

▶ 복권판매점 : 경상북도 경주시 산업로 4447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1회 퇴근길에 복권을 구매합니다. 복권은 종류별로 구매하고 있고 스피또2000은 3세트를 구매하고 배우자, 자녀와 함께 1세트씩 복권을 긁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배우자와 자녀는 스피또2000 당첨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1세트 스피또2000을 긁는데 1등 당첨이 되었고 순간 소리 지르면서 배우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샤워 중인 배우자에게 들어가 당첨복권을 보여줬고 같이 소리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기분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부채 문제로 개인파산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27.

복권판매점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77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출퇴근 할 때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5천원씩 사고 있습니다. 당첨 되면 좋고 안되도 좋은 일에 쓰인다고 알고 있어서 생각날 때마다 한번씩 구입합니다. 구입한 복권은 서랍에 보관해 뒀다 한번에 여러 장을 맞춰봅니다. 몇일 전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우연히 서랍 위에 있던 연금복권을 봤고 핸드폰으로 당첨을 확인해봤습니다. 1등에 당첨된 것을 보고 순간 '멍'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정당당하게 성실히 살아와서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꿈에 나왔습니다. 꿈에서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냥 하얀색 모습으로 나오셨다가 살아졌습니다.

28.

▶ 복권판매점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평소에 운이 없는 팡 손으로 유명했는데, 이번엔 웬일인지 2일 연속 5.000원, 10.000원 여러 장이 당첨되었습니다. 3일차에 당첨복권을 스피도1000으로 교환하였는데 첫 번째 복권에서 1등이 당첨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에게 이런 일이?', '1등이 나오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배우자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첨된 이후로 잠도 잘 못 자고 꿈을 꾸고 있는 기분입니다. 최근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기쁩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저와 배우자는 평소 꿈을 꾸지 않는데, 최근 들어 배우자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꿈과 감나무에 많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꿈을 꿔다고 합니다.

29.

▶ 복권판매점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220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쉬는 날, 약속 때문에 대구로 왔는데 약속이 취소되었다. 남는 시간에 대구에서 명당으로 유명한 복권방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복권을 구매하였다.

기존에 당첨된 복권을 스피또1000으로 교환하였고, 집에 와서 당첨확인 결과 1등에 당첨되었다.

평소 1등 당첨 사실 여부에 의심이 있었다. 그래서 당첨된 복권을 보고 '이게 맞나?' 싶어서 금액을 2~3번 확인을 하고서야 1등이 당첨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1등에 당첨되면 심장이 멎을 듯이 기쁨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덤덤했고,

지금도 1등에 당첨되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 복권 당첨된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혹은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수도(水道)가 터지는 꿈

30.

▶ 복권판매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5-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오래전부터 담배를 안피는 대신 로또와 연금복권을 그냥 재미삼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복권은 바로 당첨을 확인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연금복권 당첨번호를 확인하니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당낙첨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주기적으로 병원, 장학재단 등에 기부를 해와서 이러한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31.

▶ 복권판매점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12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로또복권만 구매하다가 3개월 전부터 매주 스피또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친정 부모님 뵙고 오는 길에 로또복권과 스피또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당첨금이 높은 스피또2000을 사려 했는데 판매점주님이 스피또1000을 건네주었고 생각과 다르게 스피또1000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당첨 확인하였고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 확인 후 믿어지지 않고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명절마다 시어머님 꿈을 꿔왔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님 꿈에서 뵙습니다. 꿈에서 뵈는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32.

▶ 복권판매점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866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로또복권 1만원, 연금복권 5천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주가던 복권판매점이 아닌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복권판매점이 하나 생겨서 사봤습니다.

몇일 후 당첨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점에 가서 당첨을 확인했고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되었습니다. 1등에 당첨되면

엄청 기쁠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와서

당첨의 행운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이라서 더 행복합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많이 꾸는데 기억에 남은 꿈은 없습니다.

33.

▶ 복권판매점 : 경기도 의정부시 새말로 7, 106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일주일에 한번 로또복권 만원, 즉석복권 오천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만 구입하다가 1년 전부터 즉석복권을 같이  
구입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당첨을 확인합니다.

몇일 전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1000을 5장 샀고 판매점 안에서  
바로 당첨을 확인했습니다.

1등에 당첨된 것을 보고 손이 떨렸고 가족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베풀면서 살아왔더니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좋아하는 연예인, 류승범씨가 꿈에 나왔고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직장 동료로 일을 같이 하는 꿈이었습니다.

34.

▶ 복권판매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159번길 4-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로또복권만 사다가 최근 즉석복권도 가끔 사고 있습니다.  
몇일 전 스피또1000을 몇 장 샀고 소액이 당첨되어 다시 같은 복권으로 바꿨습니다.  
저녁 늦게 갑자기 생각나 긁어봤더니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몇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이러한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몇일 전, 꿈에서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만났고 진실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등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도 느낌이 좋아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 평소에 어떤 복권을 자주 구매하시나요?  
-> 로또복권, 연금복권, 즉석복권

35.

▶ 복권판매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어드대로154번길 88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4살 아들이 우유가 먹고 싶다고 해,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유를 사고 잔돈으로 스피또1000을 6장 샀습니다. 처음에 1천원 당첨이 몇 번 나오고 1등 5억 당첨이 나왔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재미삼아 잔돈으로 샀는데 이렇게 당첨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베풀고,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이런 행운이 온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36.

복권판매점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1049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얼마 전에 동생네 집에 놀러가다가 재미삼아 복권을 샀고, 그 중

오천원에 당첨된 복권이 있어서 교환을 했다. 스피도는 원래 거의 사지 않아서 별 생각없이 굶었는데 1등에 당첨돼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만 들었고 덤덤했다. 로또와 연금복권은 매주 사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데, 스피도는 워낙 기대가 없어서 기뻐지만 놀라진 않은 것 같다. 연금복권에 당첨됐다면 정말 놀라웠을 것 같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그런데 올해는 막연하게 기운이 좋다고 느껴진다. 힘들 때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잘 생기는 것 같다.

37.

복권판매점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5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여자친구가 최근에 운이 좋다고 해서 복권을 사게 됐다. 처음엔 로또를 살 생각으로 편의점에 갔는데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스피도를 샀다. 사자마자 편의점 안에서 굶어봤는데 오억원에 당첨됐다. 너무 놀랍고 믿기지 않아서 손도 떨렸고, 여자친구와 함께 사장님께 물어보고 나서야 조금 믿어졌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복권 사기 4일 전에 친구가 꿈을 꿔는데, 그 꿈속에서 내가 비싼 시계를 하고 비싼 차를 타고 나왔다고 했다. 뭔가 최근에 기운이 좋았던 것 같다.

38/

▶ 복권판매점 :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49번길 18-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일하는 거래처 인근에 복권판매점이 있습니다. 거래처 갈때마다 복권판매점에 한번씩 들러서 연금복권을 1만원씩 사고 있습니다. 연금식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재미삼아 복권을 구입하고, 구입한 복권은 차 안에 모아뒀다 한번에 확인을 합니다. 일요일 오후 차안에서 연금복권 당첨번호를 확인해봤습니다. 1등과 2등에 당첨되었고 잠깐 멍했습니다. 기분이 들뜨진 않았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을 꾸지 않았고 평소와 달리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당첨된 것 같습니다.

39.

▶ 복권판매점 : 제주시 공항로 2, 1층 Gate4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여행을 갔는데 복권이 보이길래 5장을 사봤다. 그 다음날 긁었는데 1등 당첨이었다. 너무 깜짝 놀랐다. 그 순간 '이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40.

복권판매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6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사실 복권을 잘 사진 않는다. 그냥 지인이 선물로 주거나, 가족들이 나눠줄 때 한 번씩 해보는 편이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러 오시는데, 아버지가 사온 복권을 갖다 주셔서 그냥 긁어봤다. 평소에 이벤트에 참여해도 행운권 같은 것도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서 큰 기대는 없었는데, 그림 두 개가 맞고 '오'자가 보여서 오천원이겠거니 했는데 '오억원' 이었다. 깜짝 놀라서 복권을 좀 밀어놓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함께 기뻐했다. 지금 생각해도 얼떨떨하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41.

▶ 복권판매점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62, 상가동 108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스피또는 자주 사는 편이 아닌데 60회차 1등이 5명 남았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게 됐다. 하루는 10장을 샀는데 다 꽂이었고, 다음 날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복권 파는 곳이 보여서 차를 세우고 6장을 사서 집에 왔다. 2장은 아내에게 주고, 4장은 내가 긁었다. 아내는 둘 다 천원에 당첨됐고, 난 한 장이 오억에 당첨돼서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기가 싶어 얼떨떨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며칠 전부터 꿈속에서

42.

▶ 복권판매점 : 경북 칠곡군 석전로 129-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많이는 사지 않고 집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서 스피또 500원짜리만 산다. 이번엔 7장을 샀는데 다 짱이고, 제일 마지막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처음엔 너무 놀라서 졸도할 뻔했지만 기분이 참 좋았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안꿨다.

43.

▶ 복권판매점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20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주 로또복권 5천원, 연금복권 5천원씩 사고 있습니다. 구입한 복권은 바로 확인하지 않고 한곳에 모아뒀다가 아내가 한번씩 확인합니다. 이번 설연휴에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기 판매점에서 1등 당첨이 나왔다고 해서 번호를 맞춰봤습니다.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지만 생각보다 무덤덤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44.

▶ 복권판매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길을 걷다가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가끔 소액으로 5천원 정도 구입합니다. 1년에 약 5만원 정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집에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구입한 연금복권이 생각나 번호를 확인해봤습니다. 총 3장을 샀는데 1등 1장과 2등 2장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 번호를 계속 확인하고 남편에게도 당첨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기분이 얼떨떨 했다가 그 이후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생활이 조금 힘들었는데 올해 잘 되려고 연초에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45.

복권판매점 : 경기 부천시 안곡로 19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꿈꾼 날 아침에 바로 복권을 사러 갔다. 로또를 사면서 지난번에 천원에 당첨된 스피또 3장을 교환했었다. 스피또는 바꾼 것도 잊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생각나서 굽어봤는데 그중 하나가 1등에 당첨됐다. 순간 놀랐지만 예전에도 2등에 당첨된 적은 있어서 아주 놀랍진 않았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똥이 엄청 넘치는 꿈을 꿔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난다. 일어나서 바로 복권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46.

▶ 복권판매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25, 시티프라자 A동 116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재미삼아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 평소처럼 종류별로 사서 집에 와서 한 번에 굽어봤는데 1등에 당첨됐다. 놀라기보다는 기분이 좋았고,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47.

복권판매점 : 강원도 원주시 현충로318번길 35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가는 복권방이 있어서 매주 가고 있다. 1월 말에 그 복권방에 가서 종류별로 사와서 스피또는 집에 와서 굽어봤다. 1등이란게 실감이 안났고, 확실히 알기 전이라 그냥 덤덤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48.

▶ 복권판매점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0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가는 복권방이 있는데 집에서 거리가 좀 된다.  
소액당첨된 복권들을 로또와 스피또로 바꾸고 집에 걸어오는  
길에 심심해서 스피또를 긁었는데 이게 1등이었다. 너무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꾸로 뒤집어서도 보고, 그날 밤에  
자다가 깨서 한 번 더 확인했다. 확실하게 확인을 받지 않아서  
실감은 안났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49.

▶ 복권판매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76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천원에 당첨된 복권이 2장 있어서 로또 한 장, 스피또 한 장으로  
교환했다. 일요일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복권을  
긁고 싶어서 복권을 찾아서 긁어봤다. 평소에는 위부터 전체적으로 다  
긁는데 이날은 행운숫자를 먼저 긁고 금액은 빼고 다른 숫자들만 긁었다.  
'2'가 맞길래 천원인 줄 알았는데 오억원이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고 같이 확인했다. 실감도 안 났고, 당첨확인하러 가고 싶었는데  
일요일이라 시간도 너무 안갔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똥을 뒤집어쓰는 꿈을 5번이나 꿔다. 아주  
옛날에도 고드름 대신 애호박이 맺히는 꿈을 꾸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꿈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

50.

▶ 복권판매점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34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주로 로또만 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로또를 자동으로 사다가 스피또가 보이길래 재미로 5장만 사봤다. 집에 와서 굽어보는데 두 장이 당첨됐길래 스피또는 평소에 잘 사지도 않아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당첨이 아닌 줄 알았다. 여러 번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는데, 그다지 놀라진 않았던 것 같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51.

▶ 복권판매점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12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좋은 꿈을 꾸어서 복권을 샀다. 사실 예전에도 좋은 꿈을 꾸고 복권을 산적이 꽤 있는데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아서, 남편한테 꿈 얘기를 바로 해버렸다. 그래도 남편이 밀쳐야 본전이니 사보라고 해서 복권방에 갔고 평소엔 안 사던 스피또도 종류별로 사봤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날 복권을 사서 차에 탔는데 이상하게 스피또에서만 좋은 향기가 났다. 남편은 인쇄용지 냄새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만 좋았던 것 같다. 그날 밤 아기들을 재우고 집에서 별생각 없이 막 굽었는데 '오억원'이 보였고, 나도 모르게 큰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너무 놀랐고 아무 말도 안 나왔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거미 꿈을 꿔다. 사실 곤충을 정말 싫어하는데, 태몽도 거미와 지네 꿈이었고 항상 좋은 꿈에는 거미가 나왔다. 이번 꿈에는 거미가 황금색 몸통에 길고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무서워서 에프킬라를 막 뿌려서 꿈에서 깬 이후에도 별 행운은 없을거라 생각했었다.

52.

▶ 복권판매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8, 101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번 가는 복권방이 있다. 이사를 했지만 이사 가기 전부터 가던 곳이라서 그 동네에 갈 때마다 들르곤 한다. 매주 사는 만큼 사와서 집에서 굽어봤다. 보통 숫자만 굽고 당첨금액은 나중에 굽는 편이라서 처음엔 얼마에 당첨된 지 몰랐다. 금액을 굽었는데 오억원이라서 믿기지 않았지만 다시 확인했고, 무덤덤했던 것 같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53.

▶ 복권판매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17번길 6, 상가 204동 101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소액에 당첨된 복권을 4장 갖고 있어서, 교환하면서 만 원어치를 더 샀다. 그날 저녁에 집에서 누님과 통화하면서 복권을 긁었는데, 숫자가 일치하고 당첨금액에 '억'자가 보여서 긁었더니 진짜 '십억원'이었다. 한참을 뻘히 바라보다가 누님한테 이야기 했더니 농담하는 줄 알고 믿지 않았다. 머리에 쥐가 난 것 같았고, 정신차리고 두 번째 복권도 긁었더니 역시 당첨이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믿지 않는다. 대신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 때문에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많이 할 수 있게 기도를 많이 드린다.

54.

▶ 복권판매점 : 경기도 시흥시 신천3길 26-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아는 선배가 연금복권을 사는 것을 보고 연금복권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평소 로또복권만 사다가 선배가 사는 것을 보고 연금복권도 같이 샀습니다. 일요일 오후, 로또복권 당첨 지역이 내가 산 지역과 동일해서 당첨번호를 확인해봤습니다.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당첨됐고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등에 당첨되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55.

▶ 복권판매점 :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57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연금복권과 로또복권을 각각 1만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과 로또복권을 사서 일주일 정도 후에 당첨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연금복권 5장 중에 1장을 확인했고 2등에 당첨되어

1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판매점에 가서 2등에 당첨됐다고 말하니 판매점주가 5장 샀으면 그중에 1등도 당첨됐을거라고 말해줬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1,2등 모두 당첨되었습니다. 복권사는 것이 일주일의 희망이며, 설마 내가 당첨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당첨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며, 평소처럼 덤덤합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56.

▶ 복권판매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96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복권은 신기한 꿈을 꾸거나 일이 있을 때만 가끔씩 산다. 이번에도 꿈을 꾸고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매번 가는 복권방이 있어서 그곳에서 전에 당첨된 5천원에 현금을 조금 더 보태서 7장을 샀다. 굶은 후 당첨됐다는 걸 알고 놀라진 않고 그냥 무덤덤했다. 그래도 복권당첨이라는 천운 덕에 빚 부담이 덜어서 한결 홀가분하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양손에 변이 묻는 꿈을 꿔다.

57.

복권판매점 : 강원도 춘천시 행촌로 11(한성아파트상가 102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복권은 매주 구매한다. 이번엔 꿈을 꾸고 느낌이 좋았었다. 굶다가 당첨인 것 같아서 오천원 인 줄 알았는데 다 굶고 확인하니 5억이었다. 믿기지 않았고, 계속 들여다본 후에야 실감했다. 아내는 꿈만 같다며 불을 꼬집어보기도 했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와서 이런 일이 온 것 같다고 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한 2주 전에 변을 보는 꿈을 꿔다. 양이 엄청 많았다. 꿈에서 깬는데 느낌이 좋았고, 똥꿈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왠지 더 느낌이 좋았던 것 같

58.

▶ 복권판매점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70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매주 로또 5천원, 연금 5천원을 구입했습니다. 금요일마다 당첨번호를 확인했는데 지난주에는 당첨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당첨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복권판매점에 직접 가서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등 당첨된 것을 확인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보여줬고 가족들과 같이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꿈만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에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셨고 뒤쫓아가면서 불러도 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에 걸려서 어머니는 먼저 가고 저는 더 이상 따라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복권판매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꿈을 꾸고 2~3일 있다가 복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복권사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59.

▶ 복권판매점 :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일주일에 로또복권 1만원, 연금복권 1만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복권은 추첨하고 바로 당첨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한 번씩 확인합니다. 몇일 전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확인하면서 연금복권도 같이 확인했고 1, 2등에 동시 당첨되었습니다. 덤덤했고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첨 사실을 아내와 딸에게 말해줬고 기뻐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당첨을 확인하기 전날에도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버지와 추억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첨되어 기쁘고, 당첨에 대한 행운은 아버지가 주신 선물 같습니다.

60.▶ 복권판매점 :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80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시내에 불일이 있어 다녀오다가 지하철을 잘못 내려서 길을 헤매다 복권방이 보여서 마침 당첨된 복권 몇 장이 있어 바꾸러 들어갔다.

밤이어서 집에 와서 쉬다가 다음 날 낮에 굶어봤다. 굶다가 당첨된 걸 알았고 당연히 오천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눈도 나빠서 안경도 벗었다 다시 써보고, 믿기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또 확인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오히려 경직됐고 호들갑 떨지도 못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특별한 꿈은 안 꿔고, 오히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하는 일도 안풀리고 악몽도 계속 꿔었다.

61.

▶ 복권판매점 : 충남 공주시 무령로 301-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로또복권만 구입하다가 작년에 연금복권이 개편되면서 연금복권도 같이 사고 있습니다. 연금식으로 당첨금을 받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고 지나가다 한번씩 구입했습니다. 며칠 전 연금복권 10장을 샀고 추첨 다음날(금요일) 아침 집에서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등과 2등에 동시당첨되었습니다. 정말 당첨인지 순간 '멍' 했습니다. 바로 당첨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앞날을 걱정했는데 당첨되어 노후 걱정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62.

▶ 복권판매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91-2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아버지가 스피도를 선물로 주셨다. 받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굶어봤는데 1등에 당첨됐다. 믿기지 않았고 너무 놀랐지만 늦은 밤이라서 시끄럽게 소리도 못 내고 한 10분은 조용히 멍하니 있었던 것 같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63.

복권판매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98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친구가 연금복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른 복권은 안사고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이 마음에 들어 연금복권을 올해부터 구입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 생각날 때 연금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몇일 전 복권판매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평소와 달리 갑자기 복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느낌이 와서 연금복권을 샀고 1,2 등에 동시 당첨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도 정말 당첨된 건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64.

복권판매점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 230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길을 걷다가 복권판매점이 보이면 복권을 몇 장씩 사곤 합니다. 몇일 전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1000을 몇 장 구입했고 집에 와뒀다가 주말에 열어봤습니다. 1등에 당첨되어 몇 번을 다시 확인했고, 아내에게 당첨사실을 말해줬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느낌처럼 붕 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모님과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면서 사위, 아들이 잘되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부모님 덕에 당첨의 행운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졌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복권을 샀고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65.

복권판매점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10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최근에 꿈을 3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꿔다. 두 번째 꿈에  
기분이 좋아서 복권을 샀고, 운전하다가 차를 잠깐 세워두고  
긱었는데 1등에 당첨됐다. 너무 놀랐고, 믿기지 않아서 내 뺨을  
막 때렸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을 두 개 꿔는데, 첫 번째 꿈은 친구와 바다에 있다가 친구가  
상어한테 물려서 막 도망치는 꿈이었다. 두 번째 꿈은 내가  
스피드를 긱었는데 3등에 당첨됐다.

66.

복권판매점 : 전남 여수시 선원동 무선중앙로 7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4~5천원 정도를 꾸준히 사고 있다. 매번 가던 복권방에 가서  
로또와 즉석복권을 조금씩 샀고, 며칠 뒤에 집에서 긱어봤다. 그림 2개를  
먼저 긱었는데 똑같아서 당첨금을 뒤에서부터 긱었다. '억' 자가 보여서  
너무 놀랐다. 이게 진짜인지 몰라서 판매점에 다시 가서 확인했고,  
사장님이 맞다고 해서 그때야 믿겼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신기하게 온 가족이 다 꿈을 꾸었다. 나는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꿈을  
꿔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재물운이 있다고 하는 꿈들을 꿔다.

67.

▶ 복권판매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64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아침 출근길에 사무실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즉석복권을  
자주 사는 편이다. 이날은 출근길에 5천원 어치를 샀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바로 긱어봤다. 처음에 오천원에 당첨됐고, 그  
다음번에 또 '오'자가 보이길래 또 오천원인 줄 알았는데 오억원  
당첨이었다. 기쁠 것도 없이 너무 놀라서 직장동료들에게 다  
보여주고 이게 진짜인지 물어보고 같이 확인했다. 아직 당첨금을  
받기 전이라 그런지 큰 실감은 나지 않는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물벼락을 맞는 꿈을 꿔는데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68.

복권판매점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8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로또 5천원, 연금 5천원씩 구입합니다. 이전에 산 연금복권에서 5장이 당첨되어 25만원을 받고 이중 1만원을 다시 복권으로 샀습니다. 구입한 복권은 모아두었다가 한번에 확인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추첨 다음날 금요일에 바로 확인했습니다. 당첨되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무덤덤했습니다. 당첨확인 후 출근 준비를 하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자주 꾸지만 기억에 남는 꿈은 없습니다.

69.

복권판매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자로 358 (수거리)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일주일에 한번씩 구입합니다. 연금복권을 구입하고 지난주 일요일에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1등에 당첨되었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많이 생각났고 1등 당첨 행운은 부모님이 주신 선물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다.

70.

복권판매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42 (망미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5천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구입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나서 인터넷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번호가 모두 일치하고 순간 멍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평소와

다르게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착하게 잘 살아와서  
당첨의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아내가 좋은 꿈을 꿔줍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에서 물을  
내렸지만 변이 내려가지 않는 꿈, 두 번째는 깨끗한 바닷물에  
싱싱한 갑오징어가 많이 있어 쓸어 담는 꿈을 꿔줍니다.

71.

복권판매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7-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원래 복권을 조금씩 사긴 하지만, 최근에 꿈을 이틀 연속 꺾어서 느낌이  
좋아서 연속으로 며칠을 복권을 사게 됐다. 다니던 판매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샀다. 집에 오자마자 열어봤는데 믿기지 않아서  
온종일 멍하니 있었다. 아내와 서로 볼도 꼬집어봤는데 아팠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일요일, 월요일에 꿈을 연달아 꿔다. 일요일에는 변기에 똥이 넘치는  
꿈을 꿔고, 월요일에는 내 몸에 묻어서 안 떨어지는 꿈을 꿔다. 너무  
신기했다.

72.

복권판매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샛골로 74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구정 때 아내와 함께 복권을 샀다. 연휴를 보내고 복권 샀다는  
걸 잊고 있다가 뒤늦게 생각이 나서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했다. 당첨번호를 확인하는데 1등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고 아내와 이야기하면서도 놀랍고 어이가 없었다. 인터뷰를  
하는 지금까지도 생각보다 덤덤하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73.



복권판매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75-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늘 가는 판매점이 있다. 매주 사던 대로 복권을 샀고, 일하는 도중에 생각이 나서 끊었다. 평소에 언젠간 될 거란 생각도 있었고, 항상 기대를 했었어서 그런지 1등이 됐다는 걸 알고도 생각보다 담담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최근에 꿈에 어머니가 자주 나오셨는데 보기 좋은 모습이셔서 마음이 좋았다.

74.

복권판매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25번길 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최근 꿈에 자주 나와서 로또복권과 스피또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전에 샀던 스피또복권이 당첨되어 스피또 500으로 바꿨습니다. 소액으로 당첨되면 또 바꿔야 하기에 차 안에서 스피또500을 끊었습니다. 놀랍게도 1등에 당첨되었고 안믿겨 졌습니다. 몇 번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당첨사실을 알려줬고 아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자영업을 했었지만 코로나 전에 정리를 했고, 마침 돈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당첨이 되어 기쁩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잘 쉬다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지병이 있어서 병간호를 오래 했습니다. 복권 당첨의 행운은 아버지가 준 선물 같았습니다.

75.

▶ 복권판매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 110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친구 중에 복권에 대해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최근 친구에게 연금복권720+에 대해 들었고 연금식으로 당첨금을 주는 복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몇일 전 2만원치 연금복권을 구입했고 금요일 저녁, 집에서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거짓말처럼 1등에 당첨됐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 다시 당첨을 확인하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집에 돈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1등 당첨의 행운을 준 것 같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악몽을 꿔왔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기분이 안 좋은 꿈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복권을 구입하진 않았습

76.

복권판매점 : 부산 남구 수영로 38, 대진상가7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스피도는 사서 바로 긁어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도 몇 장을 샀습니다. 판매점에서 바로 긁어 당첨을 확인했고 5억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77.

▶ 복권판매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1길 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지난주 금요일에 연금복권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오전 10시정도 당첨번호를 확인했는데 구입한 5장이 1등과 2등 모두 당첨되었습니다. 한동안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꾸준히 소액으로 구입해왔고 한번은 당첨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첨이되니 마음이 들뜨기 보다 오히려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78.

▶ 복권판매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3가길11(1층)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지금까지 연금복권을 10번 정도 구입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마다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사는데 이날은 9번이 마음에 들어서 일자리에 9

번이 있는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추첨 다음 날 복권판매점에서 일자리 9번이 당첨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당첨번호를 하나씩 확인했는데 1등에 당첨되어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후에 마지막으로 하늘이 준 선물 같았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권 당첨확인을 한 날 행복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79.

복권판매점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45(읍내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소액 당첨된 복권들을 스피도로 바꿨다. 총 6장으로 바꿨는데, 집에 와서 굽어보니 첫 번째 복권이 5천원에 당첨됐고, 두 번째 복권을 굽는데 또 '5'가 보여서 '아, 또 5천원이구나' 생각했는데 5억원이었다.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았고, 가장 먼저 아내가 생각나 바로 전화해서 알려줬다. 최근에 운영하던 가게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형편이 어려워져 간절했었는데 정말 기뻐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아내가 꿈을 꿔는데 누런 과일이 넓게 깔려있는게 보였다고 했다.

80.

▶ 복권판매점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4로 1, 1층 103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원래 로또만 사는 편이다. 이날도 로또만 사고 가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들 스피도를 사는 걸 보고 따라서 5장을 샀다. 복권을 산 뒤에 바로 일하러 가야 해서 가방에 넣어두고 며칠 뒤에 꺼내서 굽어봤다. 딸이 스피도 굽는 걸 좋아해서 기다리다가 혼자 굽었는데 5억원이 5백원으로 보이고 이게 1등이 맞는지 헛갈려서 그냥 뒀다가, 딸이 와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5억원이 맞았다. 딸들과 함께 얼싸안고 만세도 부르고 기뻐했다. 빚도 갚을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을 자주 꾸는 건 아닌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오셔서 인자하게 웃음 지으신 꿈을 꾸어서 기억이 난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갔다.

81.

▶ 복권판매점 : 경기 과천시 중앙로140 버스가로판매대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동네에 자주 가는 복권방이 있다. 아침에 몇 장 구매하고 일을 하다가 팍팍하다고 느끼면 중간중간 굶어보는데, 이날은 굶다가 1등이란 걸 보고 꿈인 줄 알았다. 그냥 멍했고, 최근에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까지 핑 돌았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속에 어머니가 나와 힘든 생활을 위로해주셔서 위안이 됐다. 꿈꾼 날 아침 스피도를 몇 장 샀던 게 당첨이 됐다. 또 아내는 구렁이 꿈을 꿔다고 했다.

82.

▶ 복권판매점 : 인천 서구 원적로 7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복권 살 때 즉석복권도 같이 구입합니다. 5장 구입해서 스피도를 하나씩 굶었는데 3번째에 1등 당첨복권이 나왔습니다. 당황했고 '멍'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 형과 누나에게 당첨사실을 알려줬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낮에 막걸리를 마시고 낮잠을 잤습니다. 닭과 병아리 꿈을 꿔습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병아리가 7마리 나왔고 7마리 병아리들이 닭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형제자매가 7명이며 어머니가 생각났고 복권 당첨은 어머니가 주신 복인 것 같습니다.

83.

복권판매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55-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가족들과 산책 중에 판매점이 보여서 예전에 샀던 복권 중 당첨된 것들을 바꾸고 몇 장 더 샀다. 아이들이 굶는 걸 해보고 싶다고 해서 굶게 해줬더니 재밌다고 좋아했다. 같이 굶다가 속 보였는데 당연히 5천원인 줄 알았다. 5억원인걸 보고 말문이 막히고 뭔가 턱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당첨되기 전에 상상했을 땐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84.

복권판매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82-11 홍익프라자 1층107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일주일에 만오천원 정도 연금복권과 로또복권을 삽니다. 지금까지 로또복권만 구입했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연금복권을 추천해줘서 21회차 연금복권 5장을 처음 구입했습니다. 토요일에 당첨번호를 확인했고 1등과 2등 모두 당첨됐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동생에게 전화해 당첨 사실을 말해줬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똥꿈을 꿔습니다. 꿈에 다른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변을 봤고 변기가 막혀 똥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해몽을 찾아보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85.

복권판매점 : 경남 김해시 무계동 155-12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재미삼아 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복권을 사면서 당첨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샀습니다. 목요일 연금복권 추첨 후 저녁에 핸드폰으로 당첨확인을 했습니다. 1등과 2등에 동시당첨 됐고 아무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기분이 좋다가 보다 무덤덤했습니다. 저녁에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 마셨고 크게 한 톱 쌌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86.

복권판매점 : 경남 김해시 해반천로 144번길 35-41 스카이빌딩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복권을 구입한지 3주 됐습니다. 로또복권과 즉석복권을 합쳐 약 1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어느 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잘 안풀려 동전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로또와 즉석복권을 샀습니다. 스피도1000 1장을 구입했고 1천원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뀌서 긁었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첨되고 나서 당첨복권을 화장품 밑에 숨겼고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친구들이 몰카(몰래카메라)를 하는 건가', '내가 죽나' 등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친구 꿈에 내가 나왔는데 손에 변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꿈을 나에게 말해줬고 친구 꿈을 1백원에 샀습니다. 그때부터 1주일에 1만원씩 복권을 샀습니다.

87.

▶ 복권판매점 : 울산 북구 화정1길 28 삼우타운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잠깐 사라 나갔다가, 복권 파는데가 보여서 들어가서 샀다. 사무실이 가까워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긁어봤다. 처음에는 '이억원' 글자가 세로로 한 줄에 있지 않아서 1등이 아닌 줄 알았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1등이라고 해서 진짜 1등이란걸 깨달았다.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88.

복권판매점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회사 근처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할 때 즉석복권도 같이 구입합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복권을 긁어 확인하곤 하지만 이날은 회사에서 바로 확인했고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진짜인가 해서 계속 확인했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조카가 2명 있습니다. 조카들이 꿈에 나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날도 꿈에 조카들이 나왔고 조카들이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길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복권판매점이 보였고(밤에 꾸었던 꿈이 생각나) 복권판매점으로 발길이 이어 졌습니다.

89.

복권판매점 : 서울 관악구 신림로 288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로또복권만 구입하고 스피또 복권은 가끔 친구들과 점심값 내기로 한번씩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로또복권을 사고 즉석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피또1000을 10장 구입했습니다. 바로 긁어봤습니다. 당첨금액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당첨된 것만 확인했습니다. 당첨복권은 호주머니에 넣고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 저녁 9시쯤 다시 복권이 생각나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등이라서 놀랐고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90.

복권판매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63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연금복권을 처음 구입했습니다. 잔돈 5천원이 남아서 연금복권 5장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연금복권을 차에 놔두고 잊고 있었는데, 최근 세차를 하면서 구입한 복권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등과 2등 모두 당첨됐고, 돈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아서 담담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휴가 때 친구와 타로점을 봤는데 타로점 사장님이 눈썹 문신을 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이후 우연히 연금복권을 구입하게 됐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91. 복권판매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로또복권을 주로 구입하다가 한번씩 연금복권도 삽니다. 어느 날 로또 사러 갔다가 연금복권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5장 구입했습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집에서 당첨번호를 확인했고 2등에 당첨됐습니다. 어머니와 딸에게 당첨 사실을 말했고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기뻐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공중 화장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변을 보는 꿈을 꿉니다. 더럽지 않고 기분 좋은 꿈이었습니다.

92.

복권판매점 :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10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복권을 잘 구입하지 않습니다. 좋은 꿈을 꿉을 때 가끔 구입하는데 이번에 꿈이 좋아서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판매점에 가서 어떤 복권을 살까 보고 새로운 복권이 나왔다고 해서 연금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점심에 회사에서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알려드렸고 어머니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확인 후 같이 기뻐하셨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왔습니다. 밥그릇에 밥이 떨어져서 배고파 했더니 외할아버지가 금동전 같은 것을 밥그릇에 던져 주셨습니다. 이 행운(복권 당첨)은 부모님에게 더 잘하라고 외할아버지가 주신 것 같습니다.

93.

복권판매점 : 경남 진주시 평거로36번길 14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로또복권을 만원씩 구입하는데 연금복권720+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같이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복권은 지갑에 보관하고 지난주에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당첨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당첨 사실을 알려줬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되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당첨되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아내가 꿈을 꿉니다.(당첨된 것을 확인 후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꿈에 나왔고 악수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도 하셨는데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94.

복권판매점 : 부산 서구 토성동3가 1-1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당첨에 대한 기대, 확인에 대한 재미로 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낌이 좋아 지나가는 길에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 5장을 구입했습니다. 로또복권을 자동으로 5천원씩 구입하는 것처럼 연금복권도 5장 샀습니다. 복권을 구입하면 당첨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집에 모아뒀다, 내가 산 지역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면 그때 확인합니다. 이번 연금복권 720+ 2회차도 복권을 구입한지는 꽤 됐지만 확인은 몇일 전에 했습니다. 당첨번호를 확인하고도 당첨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첨되고 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고 감사했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돌아가신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꿈에 나왔습니다. 예전 아버지가 장사를 하던 가게 뒤에서 불이 났고 아버지가 웃으면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95.

복권판매점 : 경기 연천군 온골로 57-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구매한 지는 엄청 오래됐다. 아예 까먹고 있다가 한 3주 전에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복권을 샀었다는 게 기억났다. 바로 당첨확인을 해봤는데 1등이었다. 기분이 너무 좋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도 일단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조금 놓였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복권을 산 지 오래돼서 그 당시는 기억이 안 나고, 최근에는 없다.

96.

▶ 복권판매점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9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평소 재미삼아 즉석복권을 구입합니다. 바로 긁어서 당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몇일 전 할머니 집을 가는 길에 복권판매점이 보였고 주머니에 1천원이 있어 1장 샀습니다. 바로 긁어 확인했는데 믿겨지지 않게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 소식을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말씀드렸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97.

▶ 복권판매점 : 서울 중구 퇴계로56길 6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출근길에 버스정류장에서 굶었는데 당첨이었다.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다. 어머니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 바로 전화를 드렸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최근에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오랜 친구와 노는 꿈을 2~3번 정도 꿔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좋아서 복권을 구매했다.

98.

복권판매점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6로 10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갑자기 복권이 사고 싶어서 스피도를 몇 장 샀다. 몇 장이 당첨돼서 교환하고 또 굶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10만 원에 또 당첨됐다. 그 10만 원 교환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복권방에 가서 그 복권방에 얼마 안 남은 스피도를 다 샀다. 집에서 시간이 많은 날 다 굶어봤는데 그중 하나가 1등이었다.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우선 콜센터에 다시 확인해봤다. 확인하고 나서도 오래 보관하고 있는게 겁이 났고, 오늘 오는 길도 괜히 불안한 마음이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99.

복권판매점 :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06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독감 주사를 맞고 지인들과 복권방에 갔는데 괜히 평소에 안 사던 스피도가 사고 싶었다. 몸이 불편해 지갑을 꺼내는게 느려서 지인들보다 늦게 샀는데 내가 산 3장 중에 1등이 있었다. 천 원도 잘 당첨되지 않아 잘

안 사던 스피도가 1등이라니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다. 갑작스러워서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는데, 복권 산 날 아침부터 그냥 기분이 좋았다.

100.

복권판매점 :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16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평소 일주일에 한번 집 근처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산다. 로또복권 3천원, 연금복권 2천원 총 5천원 정도 복권을 구입한다. 구입한 복권은 바로 확인하지 않고 모아놨다가 한 번에 확인한다. 몇 일전 밤에 잠이 안와 복권을 맞춰봐야지 생각했고 5~6주 정도 모아놓은 복권을 하나씩 맞춰봤다. 신기하게 복권판매점에서 같은 조를 준 연금복권이 1등, 2등 동시에 당첨됐다.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눈앞이 흐려졌고 너무 놀랐다. 잠을 자는 남편을 깨워 당첨 사실을 말해줬고 번호를 다시 맞춰봤다. 그날은 너무 기쁘고 당황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나는 꿈을 꾸지 않았는데 동생이 사람 얼굴을 한 인어가 나오는 꿈을 꿔다고 했다. 태몽 꿈인 것 같아서 그냥 흘려들었다.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와서 조상이 준 선물인 것 같다.

101.

복권판매점 : 경북 구미시 인동43길 22-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직원들에게 줄 간식을 사고 남은 돈으로 몇 장 구매했다.

바쁜 와중에 잠깐 시간이 나서 굽어봤다. 노안이 생겨 처음에는 오천원으로 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확대해서 다시 봤다. 5억원인게 믿기지 않아 세수를 하고 다시 확인했고, 바로 아내에게 알리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했다. 가족이 먼저 생각났다. 특히 딸을 유학 보내주고 싶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102.

▶ 복권판매점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58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복권을 구매하면 항상 집에 와서 확인한다. 이번에도 집에 와서 확인했는데 1등이라는게 믿기지 않아 얼굴을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살았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에 악어 새끼 6마리가 나왔었는데 뭔가 느낌이 좋았다. 그 꿈 이후에 집 앞 새 둥지에 새 알이 7개 있었는데, 5마리가 태어나 날아갔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행운의 징조라는 내용이 있었다. 무언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다.

103.

복권판매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14길 2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3월에 구매하고 깜빡 잊고 있었다. 지난주에 옷 주머니에 있던걸 발견하고 확인해봤더니 1등이었다. 믿기지가 않아 콜센터에 전화부터 하고 믿게 됐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안났고,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굶어본 날에 꿈을 꿔다. 대변을 보고 물을 내렸는데 물만 내려가고 대변이 변기에 가득 남아 있는 꿈을 꿔다.

104.

▶ 복권판매점 : 경기 김포시 장기동 1766 위드미  
김포뉴고려병원점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복권을 자주 구매하는 편은 아니다. 아내가 구매할 때 가끔  
같이 가거나 당첨된 복권을 교환하러 가곤 한다. 이날도 소액  
당첨된 복권을 교환하러 집 앞 판매점에 갔다 왔는데, 왠지 바로  
굶어보고 싶었다. 복권을 굶고 5천원 당첨인 줄 알고 옆으로  
밀어 놓으려 하는데 이상해서 다시 보니 5억원 이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 아내에게 연락해서  
이야기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없다.

105.

복권판매점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복권, 즉석복권을 구입한다. 주머니에  
만원이 있으면 만원어치, 주머니에 천원 있으면 천원어치  
복권을 구입한다. 이번에는 스피도1000 5장과 로또복권 5  
게임을 구입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즉석복권을

굽었는데, 1등 당첨으로 나왔다. 기분은 좋았지만 덤덤했다. 과거 로또복권 3등에 당첨됐을때는 소리도 질렸지만 지금은 그냥 그랬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설산에 불이났는데 오줌을 싸서 불을 끄는 꿈을 꿔다. 꿈을 꾸고 나서 시원했고 기분도 좋았다.

106.

복권판매점 : 경기 부천시 중동로 244(중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번 가는 복권방에서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몇 장 구매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했다. 너무 놀라 이게 1등이 맞나 싶어 복권방 사장님께 여쭙봤고, 사장님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사장님과 포옹을 했다. 정말 꿈 같았다. 딸이 가장 먼저 생각났고,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고 싶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 나는 꿈은 없다.

107.

복권판매점 :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2번로 86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보통 로또만 구매하는데, 스피또가 디자인이나 색깔이 너무 예쁘고 눈에 띄어서 구매해봤다. 즉석복권은 아주 예전에 사보고 처음 사는거라 별 기대도 없었다. 집에 와서 굽어봤는데 게임 방법을 잘 몰라서 이게 1등이 맞는지 계속 복권면을 다시 읽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봤다. 1등이 맞는 것

같아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평소에 좋은 꿈을 꾸고 복권을 사면 맞지 않았다. 꿈에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왔는데 큰 호박이 보였다.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108.

복권판매점 : 울산 동구 화진길 64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일을 안하는 쉬는 날에 아들과 함께 외출했고 아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편의점에 들렀다. 평소에도 즉석복권이 눈에 보이면 가끔 몇 장씩 구입했다. 아들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고를 때 스피또1000이 눈에 들어와서 10장을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즉석복권을 긁었고 2번째 복권을 긁었을 때 5억 당첨이 나왔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놀라서 물어봤다. 1등에 당첨되고 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다. 생활이 어려워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듯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왔더니 복이 온 것 같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는데 복권을 구입한 날, 기분이 매우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과 외출하는 것도 좋았고 느낌이 남달랐다.

109.

복권판매점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9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당첨확인은 매번 추첨 직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추첨 다음 주에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당첨이 된다면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해두어서 1등이 된 사실이 무덤덤했다.

▶ 복권 당첨된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혹은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 고마운 아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 특별히 한 일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생각했다.

꿈 안꿈

110.

복권판매점 : 경기 부천시 경인로 **506** (괴안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처음 연금복권이 발행됐을 때부터 구매했다. 이번 회차에 운이 좋게 1등에 당첨됐다. 처음에는 당연히 낙첨인 줄 알고 접어두었는데 복권을 펼쳐서 확인하니 1등 당첨이었다. 당시 당첨 사실에 떨어져서 생각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11.

복권판매점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76**번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예전에는 복권을 거의 구입하지 않았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운이 좋고 재물운이 있다고 나왔다. 하는 일도 잘되어서 재물운도 있겠구나 싶어 즉석복권을 구입했는데 1등에 당첨됐다. 몇일 전에 샀던 즉석복권을 바꿨는데 바꾼 복권이 1등이었다. 1등에 당첨되어서 기뻐고 당첨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줬다. 어머니도 실감이 안나신지 계속 다시 확인했고 기뻐하셨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좋은 꿈은 꾸지 않았지만 운세가 좋다고 나와 복권을 구입했다.

112.

▶ 복권판매점 : 인천 부평구 경인로 **759**번길 **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약 3년 전, 복권 판매점의 POP를 보고 호기심에 처음 즉석복권을 구매한 이후로 종종 구입했다. 이번에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돼 아내에게 바로 전화해 기쁨을 나눴다. 처음에는 아내도 당첨 사실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당첨복권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여줬더니 축하한다고 말해줬다. 아내에게 당첨 소식을 처음 알린 건, 누구보다 가장 먼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13.

복권판매점 : 서울 강서구 양천로 **626** (등촌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1년 전 로또복권을 구매하면서 우연하게 즉석복권을 처음 시작했다. 보통 복권 판매점에서 즉석복권을 구매하고, 귀가 후 동전으로 긁어본다. 이번에 운이 좋게 즉석복권 1등에 당첨됐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바로 가족에게 당첨 사실을 알렸다. 가족들에게 당첨된 복권을 보여줬지만 실제 당첨금을 수령하면 믿겠다고 했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14.

▶ 복권판매점 : 경북 김천시 신음새동네길 13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보통 길을 걷다가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즉석복권을 산다. 아침 출근길에 구매를 하는데 이번에 운이 좋게 즉석복권 1등에 당첨됐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당첨된 날은 당첨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즐거운 상상을 했다. 복권 당첨이 되고 작은 딸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 몸이 아팠을 때 곁에서 나를 돌봐줬기 때문이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15.

▶ 복권판매점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65,(녹양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장사를 하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가끔 복권을 몇 장 산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즉석복권을 긁어 당첨을 확인 한다. 며칠 전 출근 길에 복권을 구입하고 집에서 복권을 긁었는데 1등에 당첨됐다. 아내와 함께 확인했는데

순간 둘다 ‘멍’했고 잠이 안왔다.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당첨사실을 알려줬고 어머니도 기뻐해 주셨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복권을 구입하기 전날 아내가 꿈을 꿔다. 꿈에서 로또복권 번호를 누가 불러줬다. 다음날 아침에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복권과 즉석복권 1장을 구입했는데 즉석복권 1장이 1천원에 당첨됐다. 그래서 당첨된 복권을 다른 판매점에서 바꾸면서 4장을 더 샀고 거기에 1등 당첨이 나왔다

116.

▶ 복권판매점 :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36-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일 밤마다 운동 겸 산책을 한다. 동네를 돌아보면 복권판매점이 보이는데 그때 마다 2천원 정도 복권을 구입한다. 이번에도 즉석복권을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긁었는데 소액이 당첨되서 다시 즉석복권으로 바꿨고 다시 긁었는데 1등에 당첨됐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5천원인줄 알고 계속 다시 확인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당첨사실을 말하고 함께 기뻐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에서 대학교 동창을 만났다. 대학교 졸업하고 연락이 끊긴 친구인데 꿈에서 봐서 좋았다. 친구 2명과 함께 친구 누나 집을 방문했고 누나는 만둣국을 맛있게 끓여줬다. 만둣국을 먹으려고 할때 잠에서 깬고 기분이 너무 좋아 복권을 샀다

117.

복권판매점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32,(공릉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즉석복권을 10년 전부터 지나가다 보이는 복권판매점에서 가끔 구입했다. 이번에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께 복권 당첨 사실을 알려드렸고, 당첨을 축하해주셨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아버지이다. 지금까지 철없는 아들 때문에 불효를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이다. 아버지께 당첨금 일부를 드려 효도하고 싶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18.

▶ 복권판매점 : 경남 진주시 도동로 188(하대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복권만 구매하다 약 1년 전 다른 복권도 알게 됐고 재미 삼아 한 번씩 연금복권을 구입했다. 보통 지나가는 길에 복권판매점이 보이면 복권을 산다. 운이 좋게 이번에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퇴근한 남편에게 당첨 사실을 말하자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당첨된 연금복권을 보여주자 믿고, 축하한다고 말해줬다. 남편이 며칠 전 뱀을 구해준 일이 있었다고 했다. 건물 2층에서 뱀을 발견하고, 뱀을 집어 근처 하천에 풀어줬었다고 했다. 뱀이 당첨의 행운을 준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남편이 개구리 꿈을 꿔다. 집 바닥에 구멍이 크게 생겼고, 구멍 안에서 개구리가 위로 튀어 나왔다. 아무리 밖으로 던져도 계속 방안으로 개구리가 들어 왔다.

119.

복권판매점 : 부산 서구 구덕로 207-1,(부민동2가)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꾸 후 1년 전부터 재미삼아 한 번씩 연금복권을 구입했다. 보통 금요일 오후가 되면 정해진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산다. 이번에는 오전에 연금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됐다. 여자친구와 큰 형에게 1등 당첨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니다. 살아계실 때 재정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두 가지의 꿈을 꿔다.

첫 번째, 1년전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는 꿈이다.

두 번째, 며칠 전 여자친구가 꿈을 꿔다. 꿈속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기분 좋게 웃으셨고, 그 후 나의 연금복권 1등 당첨과 당첨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했다고 한다.

120/

복권판매점 : 경기 구리시 검배로 89 (수택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즉석복권을 처음 구입했는데 1등에 당첨됐다. 당첨된 복권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집 장롱 안에 고스란히 보관했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부모님이다. 나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고,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어 복권 당첨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드리고 싶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21.

복권판매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2  
서림프라자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처음 즉석복권이 나왔을 때부터 꾸준히 구입했다. 장모님 기일 전 아내와 시장을 보다 복권판매점이 보여 복권을 사고, 그 자리에서 동전으로 긁어 확인했다. 이번에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아내와 기쁨을 함께했다. 그리고 돌아가신 장모님이 생각났다. 장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집안을 보며 항상 안타까워하셨다. 아마도 장모님께서 나에게 복권 당첨 선물을 주신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22.

복권판매점 :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애경백화점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3년 전부터 즉석복권을 종종 구입했다. 보통 퇴근길에 복권을 사고 집에 귀가 후 동전으로 긁어 확인한다. 이번에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돼 아내에게 전화해 기쁨을 나눴다. 처음에는 아내도 당첨 사실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당첨복권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여줬더니 축하한다고 말해줬다. 그리고, 남동생이 생각났다.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을 부양해 당첨금 일부를 남동생에게 주고

싶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23.

복권판매점 :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29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즉석복권을 이번에 처음 구입했다. 아내와 복권을 사고 차 안에서 동전으로 긁어 확인했다.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나와 아내는 너무 기분이 좋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한참 웃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바로 대출금 파악부터 했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아내가 며칠 전 똥 꿈을 꿔다.

아내가 말하기를 집 안방에서 옷을 입은 채로 똥을 쌌다고 했다. 그리고 바지를 벗었더니 똥 덩어리가 바닥에 우두두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똥 덩어리들을 손으로 모아들어 올렸다. 하지만 전혀 악취도 없었고, 더럽다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124.

복권판매점 :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396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연금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종종 구입했다. 보통 퇴근길에 복권을 사고 며칠 후에 당첨번호를 확인한다. 이번에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에 당첨됐고, 당첨 사실을 평소 친한 직장동료 두 명에게 조용히 말해줬더니 그중 한

명이 “될 사람은 되네”라고 말하며 축하해줬다. 당첨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장동료 2명과 축하주를 마시며 당첨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25.

복권판매점 : 울산 남구 신정로 19,(달동, 달동삼성2차아파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즉석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복권을 종종 구입했다. 보통 퇴근길에 복권을 사고 차 안에서 동전으로 긁어 확인한다. 이번에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돼 아들에게 바로 전화해 기쁨을 나눴다. 처음에는 아들도 당첨 사실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당첨복권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여줬더니 축하한다고 말해줬다. 아들에게 당첨의 기쁨을 처음으로 전한 건, 아들이 성장할 때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도와주지 못한 미안함과 듄직하게 잘 자란 고마움이 있어서였다. 앞으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겠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26.

복권판매점 : 서울 은평구 역말로 19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생애 처음으로 스피도를 구매하고 집에 돌아와서



동전으로 복권을 긁어봤다. 당첨을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해답을 찾지 못해 밤새 뜯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오전 9시가 됐을 때 바로 ARS로 전화해서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 병을 앓고 있어 일을 쉬어야 할 때에 당첨이 돼서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며칠 전 아내가 꿈을 꿔다. 나의 죽은 친동생이 꿈속에서 “형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짐 찾아가”라고 했었다고 한다.

평소 친동생이 죽은 후에 그의 가족의 재정적인 문제와 친조카의 취업을 도와줬는데 죽은 친동생이 고마움에 도와준 거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127.

복권판매점 : 서울 중구 남창동 47-31번지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필리핀에서 취업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5년 전 친구의 권유로 복권을 처음 접해봤고 이번에도 자주 구매하는 복권전문점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출입문을 나와서 약 30분 뒤 동전으로 긁었는데 1등에 당첨됐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판매점주에게 재차 확인해봤는데 1등이 확실했다. 당첨 사실을 알고, 자금난 때문에 떨어져 있는 딸과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개의치 않고, 팔짝팔짝 뛰었다. 앞으로 한국에서 당첨금으로 집도 장만하고, 딸과 같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지금도 복권이 당첨된 것이 꿈만 같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28.

복권판매점 : 서울 강북구 도봉로 **211**(미아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2년 전 딸이 복권을 사오는 것을 보고 처음 접해봤다. 그 후로 길을 지나가다 복권판매점이 보이면 소액으로 복권을 구매한다. 이번에도 스피또1000을 구매하고, 가방 속에 고스란히 넣어두었다. 며칠이 지나고, 집에 와서 동전으로 긁어보니 1등이 당첨됐다. 처음에는 사실이 안 믿어져 여러 번 확인했고, 방에 있는 딸을 불러 같이 재차 확인해봤는데 1등이 확실했다. 당첨금을 투자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29.

복권판매점 :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 **6**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퇴근길에 로또복권을 사면서 가끔 스피또1000도 함께 구입한다. 이번에도 스피또1000을 같이 샀는데 집에 와서 동전으로 긁어보니 1등이 당첨됐다. 실제로 당첨이 되니 믿기지 않았고, 지금도 무덤덤하다. 며칠만 지나면 내 생일인데. 돌아가신 남편이 생일선물로 당첨금을 보내주신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30. 복권판매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

## 단지아파트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평소 즉석복권을 구입해 긁는 것을 즐긴다. 이날도 스피또1000을 10장 정도 사고 막걸리는 한잔 하면서 복권을 긁었다. 처음에는 1천 원과 5천 원이 당첨됐고 늦은 시간이라 처음 샀던 복권판매점이 아닌 24시간을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에서 당첨된 복권을 바꾸고, 다시 동전으로 복권을 긁었다. 이번에는 5천 원이 아닌 5억이 당첨된 것이다. 두 눈으로 믿기지 않아 바로 복권판매점 주인에게 확인해보라고 보여주니 무척이나 신기해하며 축하해줬다. 서둘러 복권판매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귀갓길에 너무 들뜨고 기쁜 나머지 눈앞에 지나가는 경찰관들에게도 당첨된 복권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펼쳐진 깨끗하고 하얀 보자기 위에 내가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131.

▶ 복권판매점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로 8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스피또1000을 구매하고 동전으로 위에서 아래로 긁어봤더니 5억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다. 당첨 사실을 알고 심장이 멎는 듯했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132.

## 복권판매점 : 인천 남구 인하로 211 (주안동)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1000을 사서 바로 긁어봤다. 5억이라는 숫자가 일치해서 믿기지 않아 판매점주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고 판매점주는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멍해졌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속주머니에 당첨복권을 소중하게 품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혹여 복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주말 내내 외출을 하지 않고, 당첨금을 받기 위해 월요일이 빨리 오기만을 받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

▶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에 남는 꿈은 없다.

## 133.▶ 복권판매점 : 서울 관악구 신원로3길 2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1만원씩 구입한다. 친구들과 술 한 잔 하고 기분 좋을 때 복권판매점에 가서 산다. 이번에도 저녁에 술을 한잔하고 복권판매점에 들러 복권을 구입하는데 한 장씩 빼려고 했는데 6조가 2장이 나와서 그냥 샀다. 추첨 다음날에 인터넷으로 번호를 맞춰보는데 1등 당첨번호와 일치해 깜짝 놀랐다. 일하는 사무실에서 확인했지만 의외로 담담했다. 당첨되고 나서 가족이 가장 많이 생각났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아침에 약을 먹고 잠깐 잤는데 꿈에서 별이 몇 개가 지나갔다. 뭔가 좋은 느낌이 들었다.

134.

복권판매점 : 서울 노원구 상계동 벽산상가108-116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평소 로또복권을 1만원 사고 현금이 몇 천원 더 있으면 즉석복권을 산다. 이날도 로또복권을 사고 4천원이 있어 스피또2000을 2장 샀다. 이 중 2천원이 당첨됐고 회사 근처에서 2천원을 더 보태 스피또 2천 2장을 구입했다. 일을 하다가 스피또2000을 긁었는데 1등에 당첨됐다. 말도 안 나오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아내도 믿지 않았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전에 아내가 꿈을 꿔는데 금목걸이를 주머니에 넣는 꿈을 꿔다고 했다.

135.

복권판매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 19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평소 연금복권을 구입할 때 각 조별로 한 장씩 샀는데 이번에 연금복권 살 때는 한조를 연 번호로 10장 구입했다. 느낌이 좀 이상했고 꿈이 좋았다. 목요일에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당첨번호를 확인해봤다. 내가 샀던 번호가 1등, 2등에 당첨된 것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했다. 너무 기뻐 옆에 있던 동료와 꼭 껴안았다. 믿어지지 않았고 놀랐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똥 꿈을 꿔다. 굵은 똥을 바구니에 담고 꿈에서 깬다. 똥이지만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기분이 좋았다. 꿈에서 깨고 복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136.

복권판매점 : 충남 아산시 충무로 1150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복권판매점이 있다. 이 길을 갈 때면 가끔씩 로또복권이나 연금복권을 구입한다. 연금복권을 구입한 것을 잊고 있다가 몇 일전에 핸드폰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해봤는데 1등에 당첨됐다. 기분은 좋았지만 의외로 덤덤했다. 가족에게 당첨사실을 말해줬고 모두 축하해 줬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기억의 남는 꿈은 없다. 하지만 어머니가 최근에 꿈을 꿔는데 물가에서 우렁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잉어가 물을 흐려서 잡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우렁이를 잡지는 못했지만 좋은 꿈이었던 것 같다.

137.

복권판매점 : 경북 안동시 북평로 857-1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1만원 정도 즉석복권을 샀다. 스피또1000 5장과 스피또 500 10장을 구입하고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기 전에 아내와 함께 훑어봤다. 1등 당첨을 확인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떨려서 밥이 안 넘어 갔다. 1등 당첨이 진짜인지 믿겨지지않았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식당을 운영하는데 꿈에서 똥이 가득 담긴 자루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너무 좋은 꿈을 꾸어서 오늘은 장사가 잘될 거라고 생각했지 복권이 당첨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138.

▶ 복권판매점 :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55-7

▶ 당첨되신 걸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매주 금요일에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구입하고 지난주 당첨결과를 확인한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복권판매점에 들어서 로또복권과 연금복권 당첨번호를 확인했는데 연금복권이 1등 당첨번호와 일치했다. 당첨된 기분은 의외로 덤덤했다. 아내와 딸에게 당첨사실을 말해줬지만 딸은 믿지 않았다. 장난으로 거짓말한줄 알았다고 했다. 당첨복권을 보여주고 나서야 믿었다.

▶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가요?

-> 꿈은 꾸지 않았다. 최근에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데 딸아이 꿈에 고양이가 나타났다고 했다. 아내는 고양이가 복덩이 인것 같다고 했다.

2017.07.04 -137개 인터뷰 수집